

자랑스러운 환일의 72년 발자취



김영순 설립자님(1957년)



마스게임(1966년)



춧불예배(1973년)



김예환 설립자님(1978년)



자랑스러운 환일인상 수상자와 김은미 이사장님(2014년)



김은미 이사장님(2017년)

2019년 9월 26일 환일고등학교가 72회 개교기념일을 맞이한다. 1947년 설립자 독보 김예환 박사님께서 운화 김영순 장로님과 함께 군명 중학교를 설립하고 재단 법인을 세워 군명중학교로 6년제 24학급을 인가 받아 개교하였다. 그 후 1951년 교육법 제정에 의해 군명 중고등학교로 나뉘어 졌다. 한국 전쟁과 화재로 인해 학교 건물이 전소되어 학교의 위기가 있었으나 독보 김예환 박사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1973년 김예환 박사님께서 이사장에 취임하였고, 1974년 현재 학교 이름인 환일중·환일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설립자님께서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학교를 설립하셨고, '경천(敬天), 애국(愛國), 애인(愛人)'이라는 교훈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교 이후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4년과 1988년 학교 운영 종합우수학교로 교육감 상을 받았고, 2009년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수능 만점자를 배출하였다. 2013년에는 지금의 이사장님이신 김은미 박사님께서 이사장님에 취임하셨다. 김은미 박사님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학 연구 교수를 하시다가 설립자님의 뜻을 이어 후학 양성에 힘쓰고자 환일고등학교에 오셨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김은미 이사장님께서는 늘 학생의 시각에서 살피시고 계시며 급식 개선 위해 급식 빌딩 건설 추진, 학생들이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할 수 있고 통학로를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실 완공, 체육 활동 후 학교에서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실 설치, 후문 통학로 완공, 교실, 교무실 리모델링 등 학생들이 보다 좋은 학교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고 계신다.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학생들이 다양한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진로를 정할 수 있는 명사 특강의 경우 김은미 이사장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시며 올해부터는 인문학 특강을 마련하여 전문가의 특강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특강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셨다. 72회 개교기념일을 맞아 9월 25일에는 지역 주민들, 자랑스러운 환일 동문들, 본교 학부모님, 학생, 교사들과 함께 하는 가을밤 열린 음악회가 열릴 예정이다.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은 환일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자랑스러운 환일인으로 긍지를 가지길 바란다.

- 1학년 성락원 기자 -



영원한 환일이여, 무궁하여라!

김은미 이사장님

1947년 봉학산 마루에 깃발을 꽂아
72년 전 은누리에 빛이 퍼져간
세월의 흐름 속에서
지난 세월을 되새기며 앞으로 미래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옛 세월을 반추하면서
아득한 그리움의 고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겨레의 아픔 속에서
굴하지 않는 설립자의 불굴의 정신으로 이룩한
봉학산 마루, 환일의 전당에서 우리는 미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옛 시절의 부족함과 불편함이
오늘의 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더욱 크고
풍성한 수확을 꿈꾸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우리 환일은 그 자태를 뽐내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모진 세월의 인고를 품고 뿔어지는 향기 속에서
알알이 익어가는 일꾼을 내뽐고 있습니다.

세상을 타고 날아가 새로운 씨앗으로 태어나
또 하나의 환일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커다란 숲을 이루고 냇물을 따라 흘러
세상으로 세상으로 굽이쳐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의 정기를 품어내어
새로운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만 개의 환일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방방곡곡 우리의 열을 피어내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을 뒤로하여 환일의 정신은 무궁에
이어져
길이길이 역사의 발자국을 이어가리라.
영원한 환일이여 무궁하여라!

1면-12면 주요내용 소개

1면 자랑스러운 환일의 72년 발자취

3면 고1 소규모테마여행

9면 제 67대 학생회 출범

12면 수상자, 2학기 일정

2면 고2 소규모테마여행

4면-8면 종합

10면-11면 소감문

2학년 소규모 테마여행 - 강원도

강원도의 힘!



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2019년 7월 10일에서 7월 12일까지 2박 3일에 걸쳐 강원도로 소규모테마여행을 다녀왔다. 홀수반(1, 3, 5, 7, 9반)은 A조, 짝수반(2, 4, 6, 8, 10반)은 B조로 나뉘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규모테마여행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의 경우 학교 운동장에 모여 버스를 타고 A조는 가평 수상 체험장에서 바나나보트, 수상 놀이 기구, 수상 놀이터에서 스틸 넘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B조는 래프팅 체험을 하였는데 래프팅 체험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쉽지 않았으나 친구들과 힘을 맞춰 노를 저으며 협동심을 기르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두 조 모두 개마마을에서 송어 잡기 체험을 하고 잡은 송어를 시식하면서 송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었고 옆에 있는 계곡에서 물수제비를 하며 누가 더 물에 많이 튀거나 친구들과 대결하는 것이 즐거웠다. 하이원 워터 월드에서 실내와 실외에 다양하게 마련된 워터 슬라이드의 스틸을 만끽하였고 파도풀을 즐기며 시간가는 줄 몰랐다.

마지막 날 화암 동굴 체험을 통해 다양한 종류석과 석순을 보며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 시원한 동굴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일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이번 강원도 소규모 테마 여행의 알찬 체험을 통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심을 일깨우고 함께 활동을 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학년 백영현 기자-



한일 믿음의 발자취

박종관 교장

서울역 뒤 쪽 만리동, 공기 좋고 물 좋은 봉학산 마루에 터 잡고 기도의 외침으로 세운 한일고등학교는 김영순 장로님과 김예환 박사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1947년 9월 26일 개교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적 사랑과 신앙으로 무장한 복음이 깃드는 동지로, 선교의 성토로 그 믿음의 줄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건학이념인 경천(敬天), 애국(愛國), 애인(愛人)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적 교육구현과 설립자의 교육정신인 신의(信義), 봉사(奉仕), 우애(友愛), 소망(所望), 신앙(信仰), 건강(健康)을 바탕으로 한 참된 사람, 복된 사람을 양성하며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에 열과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72년 동안 운동장 가득히 넘쳐나던 학생들의 웃음소리, 교실 창 넘어 바뀌던 사계절의 모습, 강당 가득 열정의 패기로 꿈꾸던 학생들, 교실 가득히 사랑으로 채워시던 선생님들의 모습들, 한일의 역사는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달려 왔습니다.

매주 예배와 선생님들의 신앙 지도 및 기도를 통해 3년 동안 보고 듣고 가슴으로 느꼈던 주님을 만나 앞으로 있을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믿음의 유산이 온전히 이어나가고 지속적인 신앙교육을 통한 영성과 지성과 품성을 겸비한 한일인들이 뛰고 있습니다. 배움의 길엔 끝이 없습니다. 열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열정으로 꿈을 실현하는 길엔 한일이 함께할 것입니다.

1학년 소규모 테마여행 - 제주도

제주도의 푸른 밤



2019년 8월 27일에서 8월 30일까지 3박 4일동안 한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제주도 소규모테마여행을 다녀왔다.

1반에서 5반까지 앞 반을 A조로 묶고 6반에서 10반까지 뒷 반을 B조로 묶어 숙소 및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두고 다양하게 소규모테마여행을 진행하였다.

첫째 날 1학년 학생들이 김포 공항에 모여 출석을 확인하고 제주도를 향해 비행기를 탑승하였다. 제주도에 도착하니 비가 많이 와서 예정되었던 한림공원 관람 대신 수목원 테마파크에서 VR체험, 4D상영관, 아이스뮤지엄, 트릭 아트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을 하였고 한 여름에 담요를 쓰고 타는 아이스 썰매는 시원함과 스릴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다. 그 후 A조와 B조는 모두 각자의 숙소인 에코그린 리조트와 블루 하와이에서 수영 시간 및 담임 선생님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A조의 경우 함덕해수욕장에서 카약과 스노클링, 학급별 해변 닭싸움과 비치 발리볼 게임이 진행되어 다양한 해양 체험과 더불어 반 별로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다. 해양 활동 후 한라정에서 먹은 돼지 주물럭은 끝맛 같았고 성산일출봉의 정상까지는 비 때문에 올라가지는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다. B조의 경우 우천으로 인해 한라산 등반 대신 송악산 둘레길을 체험하고 번개 체험관 및 카트 체험을 하였다. 안전을 위해 설명을 들은 후 카트 체험을 하였는데 속도도 빠르고 코스도 길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계속 타고 싶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번개 체험관에서 번개에 대한 설명과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전기들의 음악 연주 등 다양한 체험을 하였다. 비가 오긴 했지만 멋진 조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의 주상절리를 구경 한 후 제트보트를 타러 갔는데 비가 와서 오히려 재미와 스릴이 더해졌다.

셋째 날의 경우 A조는 한라산 등반 대신 서커스 관람이 진행되었다. 서커스 관람은 줄묘기, 오토바이 묘기 등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묘기 들을 관람하며 신기함을 느꼈다. 그후 전 날 B조가 체험한 제트보트 체험, 주상절리 견학, 카트 체험이 진행되었다.

B조의 경우 전날 A조가 한 함덕 해수욕장에서 해양 스포츠를 즐기고 반 별 달리기 시합을 하여 학생들의 승부욕을 자극 시켰다. 그 후 돼지 주물럭 식사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A조가 전 날 올라가지 못한 성산 일출봉의 정상까지 올라가 자연을 만끽하였다. 그 후 승마 체험을 통해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였고, A조 B조 모두 간식으로 나온 치킨과 피자를 먹으며 제주도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마지막 날 제주도를 떠난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숙소 방을 정리하고 제주 공항에서 1학년 전체 학생이 집결하여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김포 공항에 도착하여 소규모테마여행이 마무리 되었다. 알차고 다양한 체험의 제주도 소규모테마여행을 통해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진 만큼 앞으로 학교생활에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1학년 허승범 기자-

제주도 소규모 테마여행 감상문

1학년 배찬희



제주도로 출발하는 첫째 날은 가장 정신없는 날이었다. 여행에 대한 기대와 긴장감이 섞여 설레이면서도 걱정되는 기분으로 제주도의 땅을 밟았다. 원래 제주도의 첫 일정이었던 한림공원은 우천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지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림공원을 대신하여 간 4D 체험관도 좋은 추억과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를 쌓아주기에 충분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한림공원에 못 갔던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는 4D 체험관으로 계획을 변경시켜 소중한 경험을 시켜주었던 비가 고맙기도 하다.

둘째 날은 여행 일정표 중 가장 많은 기대를 받았던 일정 중 하나인 함덕 해수욕장으로 떠나는 날이었다. 비가 많이 내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해수욕장에 몸을 담그는 아이들의 기분 또한 우울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카약과 스노클링, 간간히 미니게임들을 하면서 제주도와 한 걸음 더 친해졌던 것 같다. 이후 점심을 먹은 뒤 성산일출봉, 승마체험을 연달아 할 계획이었지만, 장대 같은 비가 내려 우리를 숙소로 돌려보냈다.

셋째 날은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비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원래 우리가 올라야 할 한라산은 일정표에서 빠지고 실내 오토바이 공연을 보게 되었다. 공연을 보는 내내, 저렇게까지 한 분야에 뛰어나지려면 얼마나 많은 연습이 선행되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했었다. 그 뒤 우리는 제트보트, 주상절리 견학, 카트 체험 등 즐거운 체험을 많이 했다. 특히 카트 체험 중, 교통사고를 많이 낸 나로서는 아이들이 운전 미숙에 대한 불평을 토로할 때 미안한 감정과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여러 교훈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날은 가장 여유 있었던 날이자, 4일이 얼마나 손살갈이 지나가는 시간인지를 새삼 느끼게 된 날이었다. 짐 정리를 여유롭게 하고 기념품점에 들리는 소소한 스케줄만 있었던 이날엔 한동안 몸 담았던 제주도와 작별을 고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던 제주도의 공기, 토양, 햇빛과 바람에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한다.

종합

리더십캠프

환일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7월 18일-19일 새로 당선된 학생회장, 부회장, 학생회 임원들과 각 반 임원들 총 78명은 가평 및 강원도에서 1박 2일 동안 리더십 여름캠프를 실시하였다. 가평에 있는 수상 체험장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고, 루지 체험장에서 루지 체험을 했다. 루지체험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루지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는 것이다.

그 후 숙소인 대명비발디파크에서 리더십 여름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 교육을 받았다. 학생회 임원과 각 반 임원들을 학교 및 학급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리더십 교육의 본질이다. 다음 날 오션월드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선후배 간에도 친분이 쌓였고, 리더십 여름캠프가 마무리 되었다. 이번 리더십 여름 캠프를 통해 리더의 요건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학생들은 리더십 캠프의 본질을 잊지 않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 1학년 이현규 기자 -



사제 동행 라이딩

2019년 무더운 7월의 여름, 방학을 앞두고 환일고등학교 1,2학년 13명의 학생들은 임부현, 박창희 선생님의 인솔 하에 7월 16일부터 7월 17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제자와 교사가 함께 춘천 지역을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서울 만리동에 있는 환일고등학교를 출발하여 운화 학원을 설립하시고 환일고등학교가 명문 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학교를 운영하셨던 고 김예환 박사님의 묘소를 참배하는 시간을 가져서 함께 참여한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다. 참배 후 라이딩 길로 유명한 대성리를 거쳐 춘천을 통과하는 총 120KM의 거리를 일주하였다.

제자와 교사가 함께 한 이번 라이딩 행사는 사제 간의 돈독한 정을 쌓았고, 선후배 간에도 친분을 쌓는 행사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 1학년 이희현 기자 -



소백산 종주 캠프

환일고등학교 1학년 중 소백산 종주 캠프에 참여하고자 한 12명의 학생과 임부현, 박창희 선생님은 2019년 7월 5일에서 7월 7일까지 소백산을 종주하는 캠프 행사를 가졌다. 첫째 날 고속버스를 타고 숙소에 도착해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팀워크를 다지고 팀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첫날밤이 지나갔다. 두 번째 날 소백산을 등반하기 위해 주먹밥을 챙겨 등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듣고 첫 번째 등반 목표로 연화봉을 열심히 등반하였다. 중간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힘들어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서로 합심하여 연화봉에 올랐고, 그 다음 목표로 비로봉까지 등반을 하였다. 비로봉 정상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을 맛보았다. 마지막 날 서울로 올라오는 길은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으로 인해 마음이 벅차 올랐다.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지 모르는 이런 뜻깊은 행사에 함께한 친구들과 선생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1학년 김민재 기자 -



여수 청소년 해양 아카데미를 다녀와서

2019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환일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여수 청소년 해양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는 희망자를 모집하여 임부현 선생님의 인솔 하에 2박 3일 동안 체험 학습을 하게 되었다. 첫째 날에는 해양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강의를 듣고 '여수 아쿠아플라넷'에서 다양한 해양 생물을 구경하였다. 둘째 날에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안전 교육을 받았고, 해양 경찰 배 모형을 조립하기도 하였다. 2인 1조로 직접 노를 저으며 카약을 탔고, 저녁에는 오동도에서 산책을 하고 빅오쇼(BIG-O Show)를 관람하였다. 빅오쇼란 여수 엑스포 옆에 만들어진 O 모양의 홀로그램 기계인 빅오(BIG-O)로 만든 화려한 무대를 말하는 것이다. 뽕 뚫린 원에서 홀로그램과 둘레에서는 물과 빛, 심지어 불도 나와서 물, 빛, 불,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화려한 쇼가 펼쳐졌다. 마지막 날에는 아카데미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퀴즈 대회를 하고 수료식을 하는 것으로 2박 3일 간의 프로그램이 끝이 났다.

- 1학년 노민욱 기자 -



종합

관악산 등행!

2019년 8월30일 환일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들은 관악산으로 등행을 하러갔다.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 비가 와서 걱정이 되었지만 마치 하늘이 반기는 듯 맑은 하늘과 화창한 날씨에 등행을 할 수 있었다. 집합시간이 다가오자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10시쯤이 되어서 출발 할 수 있었다. 화창한 날씨였지만 등행을 하니 땀이 나기 시작했고, 친구들과 함께 올라가니 재미있게, 또 금방 오를 수 있었다. 조금씩 쉬어가면서 계속 오르다 보니 점심을 먹을 공터에 도착했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 관악산의 삼성산성지에 가서 단체사진을 찍고 하산을 하는 것으로 2학년 등행은 마무리 되었다. 삼성산성지가 외국인 선교사인 세 순교 성인의 묘소라는 것을 알았다. 1학년 등행 때 에도 느꼈던 점이지만 친구들과 함께, 힘든 친구를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면서 등행을 하니 더 수월하고 즐겁게 할 수 있었다.

뜻 깊은 장소에 갈수 있게 해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무사히 2학년 학생 모두 등행을 마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느낀다.

- 2학년 윤지영 기자 -



영재 캠프 실시

2019년 7월 22일~25일 4일간 영재캠프가 진행되었다. 이 캠프는 과학, 수학, 융합 영재학급으로 나누어 60명의 학생들이 성실히 참여하였다. 총 세분의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는데, 먼저 이은형 선생님은 닭발 해부를 통한 손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수업과 로봇 팔을 만들어 미션수행을 통한 손가락 마디 및 손의 메커니즘 이해, 그리고 EL 와이어를 이용한 원하는 모양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셨다. 다음날 김동현 선생님은 치킨의 뼈를 발골 하여 표백 후 다시 골격을 맞추는 활동을 통한 닭의 골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셨다. 마지막으로 배수화 선생님은 기하학적 도형인 테셀레이션 만드는 방법과 테셀레이션을 이용하여 조명 만들기 활동을 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학 퀴즈를 통해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수업을 해 주셨다. 이번 3박4일간 캠프를 통해 영재학급의 학생들은 평소 수업시간에는 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업들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기회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정표가 되리라 믿는다.

- 1학년 송민규 기자 -



연구주제 발표

테셀레이션 이론을 이용한 전등 만들기

코딩 수업

코딩 활용 수업

합창부! 제 14회 전국 고교 합창대회 참가

2019년 7월 26일 연세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국립합창단이 주최하는 제 14회 전국 고교 합창대회가 개최되었다. 환일고를 포함하여 성암 국제 무악고, 신명고, 서귀포고 등 전국에서 총 13개의 학교가 참가하였다.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은 바쁜 일과 시간 중 점심시간과 동아리 시간을 활용하여 동아리가 구성된 3월 이후부터 꾸준히 연습 시간을 가졌다. 탁우빈 선생님께서 평소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시고 합창대회의 지휘를 맡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김인실 선생님의 반주까지 더해져 합창부는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참가 곡은 '아름다운 나라'와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이었다. '아름다운 나라'의 경우 2학년 정민재 학생의 장구 연주가 더해져 현대 음악에 전통 악기가 더해져 아름다운 화음으로 노래하였고 기독교 학교 합창부라는 전통에 맞게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곡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로 전달하였다.

최선을 다한 결과 동상이라는 값진 상이 주어져 참가한 모든 학생들이 기뻐하였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행사에 참가하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 1학년 이찬행 기자 -



대안 교실 직업 체험

2019년 4월 4일에서 6월 27일까지 환일고등학교 대안 교실 학생들은 '한국바리스타 스쿨'의 위탁 교육으로 바리스타 교육 및 '한국 조리 예식 학원'에서 주최하는 요리, 제과제빵 만들기 과정에 참여하였다.

바리스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2급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요리, 제과 제빵 과정의 경우 직접 요리를 하여 같이 음식과 빵을 시식해 보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많은 즐거움을 느꼈다.

2014년부터 시작된 환일고 대안교실은 본교 상담 선생님인 이화평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으로서 일반학급과 구분해서 일과 중 오후 수업 때, 문화체험, 체육, 특기, 직업체험 등의 여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 2학년 나호제 기자 -



바리스타 체험

제과 제빵 체험

요리 체험

체육중점 학급

체육계열 대학 입시 설명회 및 진로진학 토크 콘서트

환일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7월 8일에 본교 경천관에서 2020학년도 체육계열 대학 입시 설명회 및 진로진학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평소 체육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사전 신청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본교 학생 및 학부모님을 포함하여 25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의 열기는 뜨거웠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1부에서 송곡고에 재직 중인 여한구 선생님의 2020학년도 체육계열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와 2부에서는 1부에서 입시 전략 설명회를 해주신 여한구 선생님을 포함하여 본교 선생님인 신희재 선생님, 배명고에 재직 중인 김영 선생님 세 분과 함께한 체육계열 진로 진학 콘서트로 진행되었다. 토크 콘서트라는 색다른 방식을 도입한 2부 행사는 먼저 체육계열 진로 진학에 대한 궁금증을 몇 가지 대표적으로 제시하고, 학교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호응이 높았다. 체육 계열로 진로를 정한 학생과 학부모님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

- 2학년 이유찬 기자 -



체육 중점학교 수상 운동 교육 및 문화체험 활동 실시

환일고등학교는 2016년부터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2학년 한 학급, 3학년 한 학급을 체육 중점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초 체력 향상 및 맞춤형 전문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2019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및 강원도 일대에서 체육 중점학교 수상 운동 교육 및 문화체험 활동을 2, 3학년 16명 학생이 수상 스키 교육을 실시하였다. 2학년의 경우 수상 스키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생이 많았기에 수상 스키의 기초를 다지는 교육을 실시하였고, 3학년은 수상 스키의 실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후 물살을 가르며 수상 스키를 즐기는 학생들의 모습이 여름의 더위를 잊게 해 주었다.

- 3학년 배경호 기자 -



체육 중점학급 운영 설명회 실시

2019년 8월 21일 2020학년도 환일고등학교 체육중점학교 운영 설명회가 있었다. 우천 가운데에서도 체육 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는 본교 학부모님과 학생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님께서 참석하여 8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님이 자리를 빛내 주셨다.

본교 학교장님이신 박종관 교장님의 인사와 2016년부터 체육 중점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신희재 선생님께서 체육 중점학급에 관한 소개와 체육 계열 입시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다. 환일고등학교 신입생이나 전학생 중에서 체육 중점반에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고 입시를 준비해 보겠다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체육 중점학급 운영에 관심을 가져 준 학생과 학부모님께 감사드린다.



체육 중점학급 선발 시험 실시

2019년 8월20일~9월10일에 거쳐 환일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중점학급 선발 시험을 실시하였다. 지원 자격은 현재 1,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체육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학생으로 체육계열 대학 진학 및 진로 선택 희망자 및 대한 체육회가 인정하는 경기 종목 협회 등록 학생 선수(체육 특기자)이다.

전형 방법은 서류 평가, 심층 면접 평가, 운동역량 평가로 나누어진다. 서류 평가의 경우 교과성적, 자기계발계획서, 출결 사항을 점검하고, 심층 면접 평가의 경우는 잠재 능력 및 인성 평가로 체육에 대한 관심 및 태도와 잠재 능력, 인성 등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운동 역량 평가는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좌전굴 테스트로 평가한다.

2학년 과정 신규 학생 23명과 3학년 추가 모집 학생 3명이 시험을 치렀고, 9월 16일 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새로 선발되는 체육 중점학급 학생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종합

이춘근 박사의 인문학 특강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

2019년 7월 16일-17일 양일에 거쳐 환일고등학교 1,2,3학년 학생 중 특강 신청자 86명은 본교 경천관 2층에서 한국 해양 전략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이자 정치학 박사이신 이춘근 박사를 모시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 및 조별 토론을 실시하였다. 먼저 이춘근 박사님께서 한반도 통일은 본질적으로 국제 문제이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미국은 현재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며 체제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해주셨다. 남한과 북한의 자원과 기술력이 결합하면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배웠다.

특강을 들은 후 ‘북한이 핵을 소유하려는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조별로 열띤 토론을 하였고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토론 및 발표 우수조는 금상 11조(3학년 이재정, 김상연, 민동진, 구분민, 엄준범), 은상 10조(2학년 이태현, 최인수, 황경민, 신재웅, 안 술, 황민재), 동상 4조(1학년 임민혁, 임정민, 김정민, 김철호, 정승민, 하준수)에게 돌아갔다. 인문학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국제 정치에 대해 알게 되었고 또한 전쟁과 평화, 무기, 무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 1학년 정승민 기자 -



김정훈 박사의 명사 특강

극지에서 동물이 살아남는 법

환일고등학교에서 2019년 9월 18일 3,4교시에 ‘극지에서 동물이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로 명사특강을 진행하였다. 강사 분이신 김정훈 박사는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극지 중 남극에서 동물의 생태를 연구하는 분이시다. 남극의 생태계 구성은 얼음, 크릴, 그리고 동물들이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의 얼음이 녹게 되면 얼음이 깨끗하지 않고 오염이 되어 있어서 얼음이 녹으면서 미세 알갱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생기는 미세 알갱이로 인해 크릴의 다리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아닌 미세 알갱이가 끼게 되면서 남극의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식물성 플랑크톤을 크릴이라는 생명체가 먹게 되고 크릴을 먹이로 삼는 동물은 물범이다. 범고래의 경우 물범을 먹이로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범의 번식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범고래의 생태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강사님은 남극의 동물들을 단순히 조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지키기 위해 지구온난화라는 범지구적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수많은 국가가 높은 예산을 투자하여 남극을 조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초월해 지구 온난화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 남극 대륙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지구 온난화 해결을 위해 매진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에 극지의 생태 연구와 지구 온난화 문제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여겨진다.

- 1학년 신동균 기자 -



1학년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 실시

2019년 7월 15일 환일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현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경천관 2층에서 교육과정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였다. 2019년 1학년 학생들은 문·이과 구분 없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정하기에 앞서 학부모님께 교육 과정을 연수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희망 진로와 관심사를 바탕으로 선택 과목을 선택하자는 취지로 이번 연수가 진행되었다. 최원호 교무부장님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교육과정과 선택과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후 2022학년도 대입변화 및 대응전략에 대해 오혜경 진학부장님의 연수가 있었는데 변화하는 대학 입시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였다. 마지막으로 1학년 국.영.수 담당교사의 대입 적용에 필요한 학습전략에 관한 발표로 이번 연수는 마무리 되었다. 선택 과목을 정하기에 앞서 학부모님들께 유용한 연수였다.

신앙 부흥회

2019년 7월 8일에서 9일에 거쳐 환일고등학교에서는 2019년 교직원, 학생 부흥회가 실시되었다. 강사로선 민호기 목사님과 박준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셨고 특별 찬양으로는 환일고등학교 경배와 찬양단과 환일고 중창단이 부흥회의 찬양을 담당하였다.

동행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박준우 목사님은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힘들고 지쳤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되길 소망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 1학년 서한결 기자 -



종합

IT 과학 도서관 개관 !

변화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의 하나가 IT, 과학, 수학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쌓는 것이다. 환일고등학교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IT, 과학, 수학과 관련된 900여권의 도서를 독보 도서관에서 IT 과학 도서관으로 이동하였다. 신설한 IT 과학 도서관의 위치는 십자관 2층에 있으며 예전 수학연구실 자리이다. 학생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시간과 방과후 수업이 끝나고 자율 학습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이다. 도서의 정리나 대출은 환일고등학교 도서관 길우희 학생들이 사서 선생님과 도서관 담당 선생님을 도와 수고해 주고 있다. 학생들이 읽기를 희망하는 도서가 없거나 신간 도서의 경우 수시로 도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도서 신청과 도서관 활용으로 IT 과학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와 앞으로 관련 도서의 장서 확보가 보다 많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학생특강 대회

2학년 이지석 기자

2019년 9월 11일 6,7교시에 환일고등학교 강당에서 학생특강 대회를 실시하였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참여한 학생은 9명으로 압축되었다. 심사에는 오혜경, 김주경, 김희경, 정지호 선생님이 맡아 주셨다. 본선 진출 학생 특강 주제로는 2학년 김준수 ‘차원의 개념’, 박다솔 ‘모자이크의 원리와 문제점’, 김승리 ‘넋지가 온다’, 김태민 ‘분자기계’, 양우성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인기 채널 분석과 이용 환경 특성’, 이성훈 ‘젠티리피케이션 현상의 이해’, 1학년 이진호 ‘생물학적 인간과 얼굴의 진화’, 김현수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류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고성주 ‘자성유체를 사용해 알아보는 과학과 예술의 조화’ 라는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로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대회 결과 대상에는 ‘차원의 개념’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 동안 여유롭고 안정된 어조로 발표를 한 2학년 김준수 학생이 차지했다. 금상에는 2학년 박다솔, 김승리, 은상에는 2학년 김태민, 양우성, 1학년 이진호, 김현수, 고성주, 동상에는 2학년 이성훈, 서홍욱, 박은성, 이지석, 김운호, 송건, 1학년 김철호, 김도현 학생이 차지했다.



영어 말하기 대회

1학년 김민규 기자

환일고등학교에서 제 3회 영어 말하기 대회(English Speaking Contest)가 2019년 7월 15일 시청각실에서 1, 2학년 학생 중 18팀이 참가하였다. 혼자서 대회에 참가한 학생도 있고 2-3명이 팀을 이루어 참가한 학생들도 있었다. 참가자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사전에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고 1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영어로 말하는 형식의 대회이다. 발표 주제로는 ‘Bioinformatics, Solutions for heat wave : Actions are stronger than words’ 등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가 많았다. 18팀의 참가자 중 2학년 박은성, 박세호 팀이 1위를 차지 하였고 1학년 김민규 학생이 2위, 1학년 김도현 학생이 3위를 차지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영어과 김기현, 최윤희, 윤종은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셨다.



영어 사고력 대회

1학년 성락원 기자

2019년 7월 17일 예선을 거쳐 8월 26일 4교시 환일 고등학교 강당에서 영어 사고력 발표대회를 가졌다. 예선을 통과한 5명의 학생이 대회에 참여 하였다. 결선의 주제가 자유 주제인만큼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로 학생들이 발표하여 대회를 지켜보는 학생들도 흥미를 가졌고 참여하는 학생들의 열기도 뜨거웠다. 2학년 박다솔 학생의 ‘Fair Trade’, 황재영 학생의 ‘All about 5G’, 김태민 학생의 ‘Computational Chemistry’, 박세호 학생의 ‘Opposition of Evolution Theory’, 박은성 학생의 The key of biolo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ioinformatics’ 였고, 1학년의 경우 김도현 학생의 ‘Fine Dust’라는 주제로 대회가 진행되었다. 특히 1학년에서 혼자 출전한 김도현 학생은 2학년 형들 사이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며 자신의 영어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대회 결과 공정 무역에 대해 발표한 2학년 박다솔 학생이 금상, 은상은 1학년 김도현, 2학년 김태민, 동상은 2학년 박세호, 황재영, 박은성 학생이 차지하였다.



제 67대 학생회 출범

학생회장 당선 소감문

2학년 이경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년도에 환일고등학교 전교회장에 당선된 이경수입니다.

아직도 제가 회장이 되었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큰 할 일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에 당선된 지금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두 팔 걷고 성실히 회장역할에 임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환일 중학교에 재학에 있을 때부터 전통적인 환일고등학교의 회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같은 학년뿐만 아니라 선배님, 후배님들과 친해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고등학교에 올라와 학생수가 너무 많아서 친해지기에 어려움을 느꼈으나, 한 명씩 제가 먼저 다가가며 “내가 회장이 되어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학교를 만들게”라고 저에 대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말이 헛되지 않도록 진지한 부분에서는 진지하게, 학생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을 때는 더욱 더 활기찬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한 없이 부족한 한 해 일수 있으나 환일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에도 책임감을 갖고 끈기 있게 끝까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1학년은 2학년이 되기 위한 준비를, 2학년은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발판을, 3학년은 고등학교 생활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환일고등학교 회장 이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회 부회장 당선 소감문

2학년 윤용준



올해도 벌써 우리를 뜨겁게 태운 여름이 지나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랑스러운 환일인 여러분! 전교 부회장에 당선된 윤용준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환일인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하나 뿐인 환일고등학교에서의 저의 학창시절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One who wear the crown, Bear the crown”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로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왕관을 쓴 자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지만 그에 걸맞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자리의 무게감을 알고, 어떤 자리인지 알기에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은 저를 믿어주시고 뽑아주신 여러분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환일인 여러분과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환일인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표현하기 어려운 것까지 전 범위에 걸친 건의 사항, 요구 사항에 대해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1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의 책임감을 잊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봉학마루제와 다른 행사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저와 학생회에게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과분한 자리를 주시고, 소중한 추억을 주신 자랑스러운 환일인 여러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20)학년도 제 67대 임원 조직표

회장단



학생회장
2학년 9반 이경수



부회장
2학년 1반 윤용준

학년장



2학년 장
2학년 3반 송 건



1학년 장
1학년 2반 나승민

부학년장



2학년
2학년 2반 김태민



1학년
1학년 4반 류호빈

서기



2학년
2학년 6반 오태훈



1학년
1학년 8반 박서진

부장단



기획부장
2학년 4반 원방산



총무부장
2학년 4반 이승민



선교부장
2학년 5반 김용현



생활부장
2학년 3반 유동준



자치법정부장
2학년 7반 윤재훈



예체능부장
2학년 9반 유상준



동아리지원부장
2학년 1반 김준수



봉사부장
2학년 2반 정시후



정보부장
2학년 1반 박은성



환경부장
2학년 3반 이승원



생활안전부장
2학년 2반 김윤호



보건부장
2학년 1반 이기수



문예창작부장
2학년 1반 임낙균



특성화부장
2학년 3반 김경석



홍보부장
2학년 9반 박은상

차장단



기획차장
1학년 10반 손민우



총무차장
1학년 6반 이현규



선교차장
1학년 1반 이진호



생활차장
1학년 10반 강 건



자치법정부장
1학년 8반 안 울



예체능차장
1학년 9반 손정민



동아리지원차장
1학년 5반 배찬희



봉사차장
1학년 3반 이태연



정보차장
1학년 10반 고성주



환경차장
1학년 7반 김정민



생활안전차장
1학년 4반 김현수



보건차장
1학년 1반 송민규



문예창작차장
1학년 6반 성락원



특성화차장
1학년 2반 구동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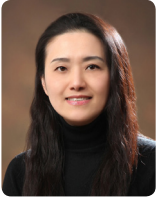


홍보차장
1학년 5반 황건호

2019 자랑스러운 환일교직원 대상 수상자 소감문

운화상

허성희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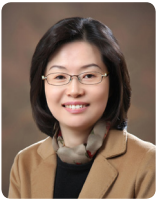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환일의 개교 72주년을 맞아 넘치는 사랑으로 늘 함께하게 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자랑스럽게 이어가고 있는 환일 아들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환일 가족이 되어 지금까지 교사의 숭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적 효과가 증대된다는 신념으로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도전하는 모습을 귀히 여겨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환일에서의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임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일의 아들들이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독보상

오혜경 부장



부족한 저에게 교사라는 직분이 허락된 것만으로도 항상 감사한데 이렇게 뜻깊은 날에 귀한상을 주시며 무거운 책임감과 부끄러움,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었던 교사라는 꿈을 처음 시작했던 환일에서의 떨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설렙니다. 늘 가르침 주시고 도움 주시는 선, 후배 동료 선생님들과 교사로서의 보람과 행복을 주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은행나무 가득한 교정에서 환일 가족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들을 채워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좋은 교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독보상

정환철 팀장



안녕하십니까? 환일중·고등학교 교내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 직무를 맡고 있는 관리부 팀장 정환철입니다.

먼저 과분한 큰 상을 주신 이사장님 이하 교장님 전교직원 및 학생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묵묵히 맡은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수행하는 관리부 동료 분들과 진심으로 영광스러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이사장님 부임이후 최근 몇 년 사이 적극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위한 공간 환경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진 바 개선 전 이후 몰라보게 달라진 교내 환경 시설을 보면 무한 책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저와 관리부 직원 일동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보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쾌적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활기차게 움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부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자랑스러운 환일학생 대상 수상자 소감문

과학영재 부문

2학년 1반 김준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자랑스러운 환일학생 대상'을 수상하게된 김준수입니다. 먼저 제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항상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환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자라는 꿈과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재단법인 한성손재한장학회의 장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인 자세로 모든 활동에 임했기에 실패했던 경험도 하나의 교훈이 되어 저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열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더욱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인재 부문

2학년 2반 김태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자랑스러운 환일학생 대상'을 받게 된 김태민입니다. 먼저 저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친구들과 실험을 실패해도 계속 오류를 고쳐나면서 논문을 쓰고, 강당에서 영어사고력대회를 발표하고, 2년 동안 과학 영재로 선발되어서 수업을 듣는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면서 융합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을 받아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인재 부문

2학년 3반 송 건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랑스러운 환일학생 대상' 미래인재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송 건입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저를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환일고등학교 입학식 날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고등학교 3년의 반이 지나갔고, 1년 반 동안 나름 열심히 참여했던 교내 활동, 자습 시간의 기억들이 하나 둘씩 스쳐지나갑니다. 이 모든 활동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고, 많은 지식과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환일을 빛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성 부문

2학년 5반 이찬행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자랑스러운 환일학생 대상' 창의인성 부문에 선정된 이찬행입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환일중·고등학교 올라기 안에서 5년 동안 부족한 제가 잘 성장할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신 덕분에 이 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환일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으로 친구들과 좋은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자랑인 합창부에서 반주와 테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환일 학생 대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멋진 환일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영재 부문

3학년 6반 신지성



안녕하세요! '2019 자랑스러운 환일학생 대상'에 선정된 체육중점학급 신지성입니다. 이런 큰 상을 수상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환일고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을 하였고 제 35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 제 45회 전국 중·고등학생 사격대회 등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이휘석 감독님의 지도를 받으며 기량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격부 지도교사 최진성 선생님과 담임교사 신희재, 허동명 선생님을 만나며 정말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고 이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며 자랑스러운 환일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교 72주년 기념

지역주민, 학부모, 학생이 함께하는

가을밤 열린음악회

일시 : 2019.09.25 (수) 시간 : 18:30~21:00 장소 : 환일중·고등학교

소감문

관악산 등행 소감문

2학년 정태혁



공부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 환일친구들에게 한 소식을 전하였는데 그 소식은 학교에서 관악산으로 등산을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등산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숨과 비난이 난무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등산가는 이유를 알고 학교를 가지 않는 우리들은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우리의 일상인 학교속에서 벗어나서 신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기회라고 생각하였다. 학교에서 등산을 가는 이유는 공부 만하고 의자에만 앉아있어서 피로해지고 지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보충하려는 의도이다. 한 학년마다 등산을 한번씩 가는데 이번 등산을 할 산은 관악산이다. 1학년 때 갔던 북한산보다 훨씬 쉽고 편한 루트의 산이여서 마음이 놓였다. 당일 날 우리반 친구들과 모집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신이 나고 설레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한 우리는 잠에 취해서 꿈뻑 꿈뻑 자면서 갔다. 그러다 도중에 다른 반 친구들도 만나고 맨날 학교에서 보는 친구들이지만 반가웠다. 친구들과 모두가 학교를 안가서 행복하고 신나는 마음은 똑같은 것이다. 등산 모집 장소의 친구들과 다 모였을 때 단합하는 기분이 들었다. 많은 친구들과 같이 등산을 올라가는 것이 이번이 두 번째였지만 처음인 것처럼 설레었다. 날씨가 우리를 맞아 주는듯 햇빛이 화창하고 포근하면서 바람이 살랑살랑 시원하게 부는 날씨였다. 등산을 올라가는데 친구들과 함께여서 그런지 힘이 들지 않았었다. 그리고 친구끼리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 서로의 마음도 알아가고 더 친해지는 시간이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별레들도 신이 났는지 별레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별레로 인해 놀면서 친구들끼리 더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다.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올라왔더니 금방 올라와서 친구들과 같이 오순도순 앉아 밥을 먹었다. 밥을 먹으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날씨 덕분에 선선하고 시원한 바람과 푸릇푸릇한 나무들의 깨끗한 공기와 함께 밥을 같이 먹을 수 있었다. 등산의 묘미는 도시락을 싸우는 묘미라고 생각한다. 친구들의 도시락이 궁금하고 무엇을 싸왔을 지 기대하였다. 하지만 친구들의 도시락은 거의 김밥으로 모두 채워져 있었다. 부모님들이 손수 열심히 김밥을 싸온 친구들도 있고 김밥집에 사온 친구들도 있었다. 친구들끼리 서로 다른 김밥들을 나눠 먹으면서 더 돈독해지는 시간인 것 같았고 맨날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급식만 먹는 우리들에게는 색다른 시간 이었다. 밥을 다 먹고 깨끗이 치운 후 반끼리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으려고 모여 앉으려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었고 힘들어서 지친 아이들과 빨리 내려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혼란하였다. 그런데 그 분위기조차도 신이 났었고 절없는 어린이들이 떠들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났었다. 등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위험하고 다칠 수 있다. 어제 비가 와서 돌과 바위가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고 다리가 풀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조심해서 내려왔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 새롭게 다짐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다.

강원도 소규모 테마여행 감상문

2학년 박은상



화창한 초여름 어느 날, 우리 환일고 2학년 학생들은 소규모 테마 여행을 위해 학교 운동장으로 모였다. 반 별로 줄을 서고 출발 전 주의사항을 들은 후, 들뜬 마음으로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다보니 어느새 가평 수상 체험장에 도착해있었다. 비소식이 있었지만 우리들의 기도 덕분에 비가 오지 않았다. 우리는 신나는 마음으로 바나나보트 등 여러 가지 놀이기구들을 타고 놀았다. 놀이기구를 타면 상상이상으로 빠른 속도와 실 새 없이 튀기는 물에 정신이 없었지만 굉장히 스릴 있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도 날라 가는 것 같았다. 놀이기구들을 타고 옆에 마련된 수상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물에 빠지면서 노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다. 서로 끊임없이 빠뜨리고 빠뜨기만 해도 너무 재밌었다. 그렇게 시간가는 줄도 모르게 수상체험을 하고, 우리는 숙소로 갔다. 수상체험 후라 다들 지칠 줄 알았지만 반 친구들과 방에 모여 밤새 즐겁게 놀았다.

다음날, 개미마을 송어 잡기 체험을 하러갔다. 다들 바지를 걷어 올리고 송어가 모여 있는 물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송어가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친구들과 진을 치고 구석으로 송어를 몰아서 잡았을 때의 쾌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계곡에서 물수제비도 했다. 친구들과 누가 더 물에 많이 튀기냐 대결하면서 즐겁게 놀았다. 그리고 나서 방금 전 잡은 송어를 구워서 먹었다. 우리가 직접 노력해서 잡은 송어라고 생각하니 더욱 맛있었다.

송어잡기 체험 후, 우리는 하이원 워터월드로 향했다. 우리는 먼저 실내에 있는 2인용, 6인용 슬라이드를 탔다. 다들 재밌어서 몇 번이나 타고 야외로 나왔다. 야외에는 더 큰 워터 슬라이드들과 파도풀 등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 중 '아일랜드 부메랑' 라는 슬라이드가 매우 재밌었다. 급강하하자마자 바로 수직 상승하는 슬라이드여서 굉장히 스릴있고 재밌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이나 더 탔다. 또 파도풀도 굉장히 재밌었다. "뿌우우우" 하는 고동소리와 함께 3m의 거대 파도가 몰아닥치면 순식간에 떠밀려갔지만 다시 앞으로 수영해가서 다시 파도를 맞는 것을 반복하면서 즐겁게 놀았다. 이렇게 정신 없이 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가 친구들과 마지막 밤을 신나게 즐겼다.

마지막 날, 우리는 화악동굴로 갔다. 밖은 후덥지근했지만 동굴에 들어서자마자 냉장고에 들어간 느낌이었다. 시원한 걸 넘어서 출기까지 했다. 화악동굴은 5가지의 테마로 나뉘어져있었다. 각 테마를 즐기면서 다양한 종유석과 석순들을 보다보니 어느새 동굴 끝에 와있었다. 우리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이번 여행을 통해 학업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반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며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또, 평소엔 체험하기 힘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다.

리더십 캠프를 다녀와서

1학년 이현규



2019년 7월 18일 학생회 학생들과 각 반 임원들 총 78명은 리더십 여름캠프를 갔다. 방학하자마자 가는 여행이라 모두들 기대가 부푼 상태로 버스에 탔다. 버스에 탄지 얼마나 지났을까, 우리는 가평에 있는 수상 체험장에 도착했다. 모두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상레저를 즐겼다. 처음에는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꺼려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이시간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할 만큼 재미있었다. 튜브를 보트에 연결해 물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정말 짜릿했다. 수상레저에서 즐긴 이후로 우리는 루지 체험장으로 갔다. 루지체험은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 루지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보다 경사가 가파르고 코스가 길어서 속도가 빨랐다. 이 작은 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보니 나도 지레 겁을 먹고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 뒷사람을 불편하게 했다. 수상레저도 즐기고 루지도 두 번이나 타니 녹초가 된 상태로 우리들의 숙소인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쉬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온 이유를 잊지 않고 리더십 교육을 성실히 받았다. 리더십 교육은 학생회와 각 반들의 임원들에게 자신들이 있는 자리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다음 날 우리는 오전부터 다 같이 오션월드에 갔다.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좋은 시설들과 주어지는 자유시간은 우리를 기대에 차게 했다. 우리들은 모두들 재밌는 물놀이 기구를 탔더니 녹초가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물놀이 후 먹는 식사는 정말 맛있어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그렇게 버스를 탄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들었다. 이런 경험들은 기말고사가 끝난 우리에게 좋은 휴식이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리더십 캠프의 본질을 잊지 않고 더욱 책임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영재학급 여름방학캠프 소감문

1학년 윤준석



중학생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고, 손으로 하는 만들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학기 초에 과학영재학급에 지원하게 되었다.

토요일 아침에 나오는게 쉽지 않은 일 일것 같았지만,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다. 여러 가지 과학, 수학, 융합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면서 탐구력과 창의력을 함양할 수 있었고, 평소엔 알지 못했던 분야들에 대한 실험이나 과학적인 사실들도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던 것 같았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중에는 환일고등학교 영재학급 학생들 모두가 학교에서 4일간 진행되는 영재학급캠프를 참여하게 되었다. 4일의 기간동안 체험했던 활동들중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은 EL(Electro Luminescence)와이어를 이용해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개성을 가진 네온싸인을 제작하는 활동이었다.

EL와이어는 교류전압이 가해질 때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면서 발생하는 전기장을 이용해 발광하는 원리인데, 전력소모가 작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또한 앞으로 남은 영재학급 활동 기간들 동안 더 많은 소재와 재료들에 대해 탐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지식과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캠프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2~3명씩 조를 정해 창의적 산출물 대회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탐구하고 실험하고 발표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각 조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체험하던 것들을 응용해 보다 획기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2019학년도 수상자

특대생



1학년 김민규



2학년 김준수



2학년 송 건



3학년 김동건



3학년 박주호

논술왕 대회 금상



3학년 김지원



3학년 민동진

과학 독서 탐구 대회 금상



1학년 김현수



2학년 남무진



2학년 김준수



2학년 배진호



3학년 이재동



3학년 이태호



3학년 박주호

생명 과학 창의력 대회 금상



3학년 김성운



3학년 김한누리

지구 과학 창의력 대회 금상



3학년 김수용



3학년 김준수

영어 말하기 대회 금상



2학년 박은성



2학년 박세호

영어 사고력 대회 금상



2학년 박다솔

과학 창의 아이디어 공모전 금상



1학년 윤준석



1학년 이경훈



1학년 정찬우



2학년 김민재



2학년 김태민



2학년 박은성



3학년 김동건



3학년 허성주



3학년 이태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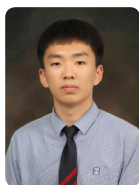
인문학 특강 대회 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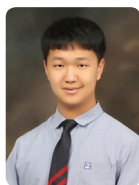
3학년 김상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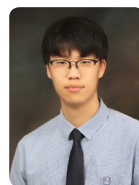
3학년 엄준범



3학년 구본민



3학년 민동진



3학년 이재정

학생특강 대상



2학년 김준수

교외 수상

제 14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전국고교합창 경연대회
동상

2학기 주요 행사

9월

4일(수) 전 학년 모의평가
25일(수) 개교기념 예배, 열린 음악회

10월

15일(화) 고3 학력평가
18일(금) 봉학마루제

11월

14일(목) 대학능력시험
18일(월)-22일(금) 고3 기말고사
22일(금) 설립자 추모예배
27일(수)-29일(금) 고3 스키캠프

12월

5일(목)-10일(화) 12학년기말고사
11일(수)-13일(금) 고1 스키캠프
26일(목) 방학식